

2022. 12. 1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12.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제관광·MICE본부  
관광콘텐츠팀

쪽수 : 4쪽

국제관광·MICE 본부장	이 상 훈	3788-0840
관광콘텐츠팀장	이 준 호	3788-0837
담 당 자	유 가 은	3788-0845

## 2022 서울 빛초롱, 광화문 광장서 최초 개최

-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날인 31일 토요일까지, 13일간의 빛의 향연
- 등 전시, 광화문광장 마켓,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행사 운영 의지 밝혀

- 2022 서울 빛초롱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주관, 주최하는 2022 서울 빛초롱은 오늘부터 12월31일(토)까지 13일간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 기간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빛 조형물 관람이 가능하며 마지막 운영일인 31일에도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밤 10시에 종료된다.
- 서울 빛초롱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부터 세종대왕 동상 구역 및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광장 전역을 걸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 전체 전시구역은 총 4개로 나눠 각 테마에 맞는 빛 조형물이 설치

되며, 1전시 구역은 ‘용기의 바다’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의 명랑 분수 위로 흑경(검은 거울)과 LED를 활용해 바다를 연출하고 거북선 등(燈)을 전시한다.

- 2구역은 ‘동행의 빛’을 테마로 토끼해를 맞이해 12m의 대형 복토끼를 세워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화로를 걷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조형물도 한지로 만든 트리와 함께 연출된다.
  - 3구역은 ‘빛의 정원’을 테마로 세종로 공원 구역에 잎이 진 한 겨울에도 영롱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숲이 펼쳐진다. 숲 옆쪽으로는 모닥불 빛 조형물을 둘러싼 겨울 전래놀이 등(燈)을 재현하고, 전 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한지 등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3점도 전시해 추억의 공간을 조성했다.
  - 4구역은 ‘Welcome My Soul Seoul’을 테마로 광화문 잔디마당에 내려앉는 대형 비행기 조형물과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들어오는 국내(인바운드) 관광객들의 모습이 구현된다. LED의 순차 점멸을 통한 생동감 있는 연출로 정적인 빛 전시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 광화문 광장의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행사 기간 내 동시 운영된다.
- 총 50여 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공간 사이에 설치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 마켓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마을)에는 높이 12m의 대형 트리가

전시되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2m의 대형 스노볼 포토존, 크리스마스 시즌 포토존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 또한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같이 진행된다.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참여를 위해 현장안전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동선 이동을 관리하며, 관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에서 공포한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개최 전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심의,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마쳤다.
  
- 또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및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주재 사전안전 대책회의를 추진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하였다.
  
- 현장에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최 측 및 유관기관이 모든 상황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며, 긴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내내 구급대원이 상주할 것이다.
  
- 이 밖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조직하였고, 화재·정전·테러·혼잡 사고 등 상황별·유형별 대책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계자들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편, 2022 서울 빛초롱 행사 조형물 및 전경 사진은 12월 19일 (월)부터 서울관광재단 공식 누리집([www.sto.or.kr](http://www.st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